

전북도, '더불어 행복론' 출시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 성실히행자 대상 최대 1500만원 소액금융지원

전북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개인회생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인 '더불어 행복론'을 출시했다.

2일부터 실행하는 '더불어 행복론'은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지원사업이다.

지원조건은 1인 최대 1,500만원, 연 2~4% 이내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1,300여명에게 총 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매년 줄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부채 변제로 사용하고 있다.

학자금, 병원비, 영세 사업장 운영, 고금리차환 등 긴급자금 필요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소액이지만 '더불어 행복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북도 거주자,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법원의 개인회

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전북도 투자금융과(280-356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더불어 행복론으로 도내 1,300여명이 혜택을 받아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가계경제의 최소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전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후원사 모집

대회 조직위원회, 3~19일까지 유치 위한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후원사 모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대회 후원사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를 3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원사 유치 대행사는 조직위원회를 도와 공식 후원사 유치 활동을 펼치며,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대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위는 후원사에게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공식 명칭과 상징물의 독점적 사용권 등 상업적 권리를 상품의 판촉과 광고에 활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후원을 도와 공식 후원사 유치 활동을 펼치며,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대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최근 5년간 마케팅 대행실적이 30억원 이상으로 국제행사 또는 국제스포츠 대회와 국내경기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포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대회 마케팅 대행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다.

사업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apmg2023.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도내 출신 대학생 150명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21년도 향토인재 장학생'을 선발한다.

진흥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출신 대학생 150명을 선발해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1년도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요강'을 안내했다.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며,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누리집(www.jbdeam.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자격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2021년 2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도로 되어있는 자, ▲또는,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도로 돼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이어야 한다.

성적 자격기준은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이 서울지역(4년제)은 평균 70점 이상, 지방과 전문대는 평균 60점 이상, 예체능 및 장애인은 평균 50점 이상이며, 재학생은 전

체학년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과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으로 평가 심사해 시·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진흥원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4월 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80-2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교육청과 원광대학교병원원은 지난 2월 26일 김승환 교육감과 윤권하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우려목 등의 전량 제거와 연중 소나무류의 무단이동단속에 나선다.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고사목에 잠복했다가 5~6월경 우와 후 살아있는 소나무를 후식할 때 감염되는 병으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고사된다. 이에 피해목과 주변 고사목 등을 제거 후 파쇄처리로 3월부터 우와기 전까지 피해 고사목 등을 전량 제거해야 한다.

도는 전량 제거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현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도 병행해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종돈장 일제검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3월 한 달 동안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도내 종돈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도내 번식용 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은 24개소로, 돼지를 사용하는 양돈장에 어미돼지를 공급하는 17개소와 정액을 공급하는 7개소가 대상이다.

도는 이들 24개소 종돈장에 대해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로 돼지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가축질병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될 경우, 시·군에서 해당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 아열벡테르의 아

프리카페지열병(ASF) 발생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가축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종돈장의 아프리카페지열병 검사와 차단방역 실태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장에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종돈장 차단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방역수칙을 교육해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본격화

원광대병원과 협약 체결... 상담·치료 등 고위험학생 원스톱 지원

전북교육청의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이 본격화된다.

도교육청과 원광대학교병원원은 지난 2월 26일 김승환 교육감과 윤권하 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 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험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병원형 위(Wee)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원광대병원원은 ▲정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의 상담·진단·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정신건강의학적 위기로 학교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마음건강증진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운영 등의 사무를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전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형 위(Wee)센터에서 사회화를 거쳐 참여 여부를 판단, 최대 1개월 이내 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병원형 위(Wee)센터가 고위험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권하 병원장은 "병원형 위(Wee)센터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이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양송정구역소규모재건축 공고 제2021-01호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당 조합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1)명칭: 남양송정구역소규모재건축
 - 2)용역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업체
 - 3)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80-2번지 일원
 - 4)구역면적 및 조합원: 9,355.00㎡ / 97명
 - 5)현 단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 심사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공통사항 - 1)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공통참여 / 컨소시엄 불가

용역명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현장설명회
 - 1)장소: 조합사무실(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지삼길 27(효자동1가))
 - 2)참석: 1. 위임장(대리인참석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4. 참석자 명함, 5. 지명권: 1부
 - 1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시: 2021년 3월 5일 금요일(오후 2시)"
 - 2차: 설계업체 "일시: 2021년 3월 5일 금요일(오후 3시)"
- 입찰 일시 및 장소
 - 1)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오후 3시) - 오후 2시부터 접수 시작함
 - 2)장소: 당 조합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
 - 3)제출서류: 현장설명회 배포 자료 참조
- 선정 방법: 조합의 선정 방법에 따름(※ 입찰지침서 참조)
-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 1)입찰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선정 후라도 선정유 무효 처리함
 - 2)입찰 선정기준 및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3)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63-225-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남양송정구역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 황 호 봉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